

[독서민필]

# '세계 책의 날'이 있는 봄도 '독서의 계절'

© 김가혜

흔히들 독서의 계절로 '가을'을 꼽는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과 함께 '독서의 계절'로도 불리기 때문이다. 천고마비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아 살핀다는 뜻으로 날씨가 좋은 계절임을 가리키는 사자성어이다. 그렇다면 가을이 유독 '독서의 계절'이라 불리는 건 왜일까?

찾아보면 여러 가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농경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해석이다. 독서를 장려할 때 자주 인용되는 사자성어 '등화가친(灯火可親)'은 당나라 시인 한유가 아들에게 책 읽기를 권하며 지은 시에 등장하는 구절로 한해 농사를 마치고 먹을거리가 넉넉해진 가을은 마음의 여유를 찾기에 좋아 독서에 더없이 알맞은 계절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가을의 풍요로움이 마음까지 넉넉하게 한다 하여 이 계절이 독서의 계절로 굳어졌다는 설이다.

이쯤에서 문득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봄인데 굳이 가을을 이야기하는 리유가 뭔가?' 하고 말이다. 하지만 '세계 책의 날'이 4월 23일, 바로 봄이라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굳이 독



시 생성 이미지

서의 계절을 가을로만 한정해둔 채 독서를 미룰 리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 테니까.

봄은 겨우내 움츠렸던 생명이 힘차게 약동하는 계절이다.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의 정신도 새로운 지식과의 만남으로 깨어나기에 봄 또한 그 자체로 더없이 빼어난 독서의 계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추운 겨우내 움츠렸던 사람

들도 화창한 봄날을 맞아 나들이를 계획하기 마련이다. 야외 활동이 잦아지면서 독서는 자연스럽게 뒤전으로 밀리기 쉽다. 그럴 때 유용한 독서법이 바로 '자투리 시간 독서법'이다. 즉 짬이 날 때마다 틈틈이 책을 읽는 것이다. 이 방법만 습관화해도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냐?는 핑계는 더 이상 댈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요즘은 전자기기를 리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독서가

가능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자투리 시간 1 분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책을 펼쳐들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한줄을 만날지도 모른다. 불과 몇분 남짓한 이 짧은 순간이 건네는 깨달음은 때로 헤아릴 수 없이 값진 여운을 남긴다. 그렇게 얻게 된 '가치'는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으로 자라나 일상 속에서 적재적소에 빛을 발한다. 이처럼 독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든다.

각설하고, 계절이 독서를 규정할 수는 없다.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봄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책과 함께할 수 있다.

다만 봄은 특히 '세계 책의 날'을 품은 계절로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 시기에 독서를 통해 지적 호기심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봄별이 따로 온 이 계절에 일상에서 멀어졌던 독서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며 봄날의 산책길 벤치에 앉아 책 한권을 펼쳐보는 건 어떨까?'... 하고 독서를 권장할 뿐이다.

## 길림대학, 《광아명전》 출판기념식 개최



광아명선생 탄생 120 주년에 즈음하여 지난 17일 길림대학에서는 광아명 교육사상 연구회를 개최하고 《광아명전》 출판기념식을 진행했다.

《광아명전》은 중국의 저명한 교육가이자 마르크스의 이론가인 광아명(1906-1996)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인물전기로 2026년 3월 길림대학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광아명선생의 빛나는 업적을 기리고 그의 숭고한 정신과 교육사상을 계승·발양하기 위해 길림대학은 2024년초부터 전기 편찬 작업에 착수, 2년간의 정성을 기울인 끝에 《광아명전》을 완성했다. 총 47만자 분량에

근 백쪽의 귀중한 역사사진이 수록됐으며 풍부한 역사자료를 바탕으로 광아명선생의 각 시기별 주요 공헌과 사상 경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전기의 출간은 광아명선생의 탁월한 일생에 대한 깊은 경의와 영원한 기억일 뿐만 아니라 길림대학이 홍색유전자를 계승하고 선현의 정신을 선양하는 중요한 문화 사업이다.

출간식에서는 이 전기가 독자들이 광아명선생의 확고한 혁명신념, 깊은 이론적 조예, 뛰어난 교육 실천 및 숭고한 인격 풍모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로부터 앞으로 나아갈 정신적 힘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1906년 강소성 단양에서 출생한 광아명선생은 1926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했다. 그는 지하공작에 종사했으며 《대중일보》의 주요 창간자중 한명으로 '당의 심장, 군중의 신명'이라는 신문 리념을 확립했다. 새 중국 창건후 화동국 선전부 부부장 등을 역임했다.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동북인민대학(후에 길림대학으로 개명) 당위 서기 겸 교장을, 1963년부터는 남경대학 당위 서기 겸 교장을 지냈으며 이후 명예교장으로 추대됐다.

/ 길림일보



사진은 지난 19일 저녁에 도착한 연변도서관 자습실 풍경이다. 저녁 6시가 훌쩍 넘어가는 시간임에도 연변도서관 자습실은 불빛을 밝히고 오가는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리용객들은 각자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 책장을 넘기거나 공부에 몰두하며 도서관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 김가혜기자

연변도서관 운영 시간(매주 월요일 오전 폐관)

- 여름철  
열람실 : 8:30—17:30  
자습실 : 8:30—21:30
- 겨울철  
열람실 : 8:30—17:00  
자습실 : 8:30—21:00

[추천도서]

우리 곁의 이야기가 문학이 될 때...

## 《기러기 나는 계절》

우리 삶은 때로는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가장 깊은 울림이 숨어있다. 연변작가협회의 계획출판 항목 지원을 받아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출간된 단편소설집 《기러기 나는 계절》이 바로 우리 곁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사회의 단면을 섬세하게 포착한 작품이다.

이 소설집에는 《연변문학》, 《장백산》, 《도라지》 등 문학지에 발표된 단편소설 10편이 수록되어있다. 수록된 작품들은 중년 부부의 혼인 문제, 로인들을 통해 바라본 현대 농촌의 풍경, 직장에서 고민하는 녀성들의 이야기 등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평범한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간다. 작자는 이러한 사소한 이야기들로부터 현대의 사회를 투영시키고 더 나아가 인간의 실존 문제와 녀성의 주체성이라는 화두를 자연스럽게 탐구해 나간다.

특히 이 작품집의 강점은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생활 속 이야기로 풀어냈다는 점이다. 독자들은 작품 속 인물들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공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 공감은 단순한 감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 의미까지 지닌다.

이 소설집의 작가 김영애는 길림성 훈춘시에서 태어나 연변제1사범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훈춘시제1실협소학교에서 교원으로



로 재직중이며 중국작가협회 회원이자 연변작가협회 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도라지》문학상, 《연변문학》 신인상, 연변주정부 '진달래문예상', 《민족문학》 년도상 등 굵직한 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그동안 단편소설집 《소리가 보이니?》, 《기러기 나는 계절》을 출간하며 활발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문학의 울림을 찾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진솔하게 마주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이 소설집을 추천한다.

/ 김가혜기자

## 제 4 회 새별아동문학상 시상식 및 아동문학 세미나 열려

연변조선족아동문학연구회에서 주최하고 함흥골든해양항운그룹에서 후원한 제 4 회 새별아동문학상 시상식 및 아동문학 세미나가 지역 문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연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시상식은 연변 작가들의 끊임없는 창작 정신을 고무하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아동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88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펜을 드는 작가 김만석을 비롯해 박영옥, 정문준 등 원로 작가들의 왕성한 활동은 후배 문인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다.

올해는 동시부문에 섬세한 시각적 이미지와 생동감 넘치는 동심을 형성화한 리명자의 <금붕어(외 2수)>, 동화부문에 개발과 보존의 갈등을 공존의 지혜로 풀어낸 김만석의 <제비네 아파트>, 소설부문에 지구환경 위기와 현실의 소중함을 잠신한 상상력으로 연결한 남송화의 <별빛 흐르는 언덕에

>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 박송천은 심사평을 통해 "응모작마다 고유의 빛깔과 개성이 돋보였다. 특히 오늘날 어린이들의 생활과 밀착된 소재를 매력적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연변조선족아동문학연구회 회장 김강혁은 개막사를 통해 "지난 4년간 골든해양아동문학상과 새별아동문학상을 통해 총 24명의 수상자를 배출하고 기관지 《꽃나라》를 통해 120여편의 회원 작품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작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꿈의 날개를 달아줄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물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지역 아동문학의 발전 방안과 창작 기법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주최측은 오는 9월 제 6 회 골든해양아동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하며 창작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 종합

图说  
我们的  
价值观

# 勤善为本 吉福满门

富强  
民主  
文明  
和谐

自由  
平等  
公正  
法治

爱国  
敬业  
诚信  
友善

河南舞阳 张新亮作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